

우주인 이소연씨의 우주생활 4일째

“김치·고추장... 한식 인기 최고”

“어제 만찬에서 라면, 김치, 고추장의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귀환할 때 남은 러시아 우주인들에게 선물할 겁니다.”
광주 출신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29·한국항공우주연구원)씨가 13일 오후 6시17분(이하 한국시간, 국제표준시간 GMT 오전 9시17분)부터 10분간 SBS라디오 방송 회견을 갖고 국제우주정거장(ISS)에 4일째 머물고 있는 소감을 밝혔다.<관련기사 16면>

휴일에도 교육·과학실험 계속

이씨는 휴일에도 5가지의 교육실험과 7가지의 과학실험을 계속했다. 자유시간을 쪼개 오후 7시 50분(GMT 오전 10시50분)에는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과 아마추어무선통신(HAM) 장비를 이용해 10여분간 교실했다. 이에 앞서 이씨는 이날 오전 4시35분(GMT 오후 7시35분) 동승 우주인들에게 한정식 만찬을 배웠으며 전날인 12일 오후 7시25분(GMT 오전 10시25분)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영상대화도 가졌다.
<라면·김치·고추장 우주서도 인기=유리 가가린이 1961년 세계 최초로 우주비행을 한 ‘우주의 달인’인 13일 새벽 4시35분(GMT 12일 저녁 7시 35분), 이씨는 ISS에 머물고 있는 미국·러시아 우주인 5명과 한정식 만찬을 즐겼다.
이씨는 동결 건조된 우주밥, 뜨거운 물을 붓고

빨대로 먹는 우주된장국, 원터치형 캔태로 포장한 우주김치, 고추장, 볶은 김치 등을 우주인들에게 대접했다. 식사를 마치고 방사선으로 멸균된 생식비와 수정과, 녹차, 홍삼차가 디저트를 맛보았다. 또 간식거리로 라면을 제공했다.

미·러 우주인들에 한국음식 대접

이씨는 13일 SBS라디오 회견에서 “어제 저녁 ISS에서 한국식 만찬을 했는데 라면, 김치, 고추장의 인기가 아주 좋았다. 아직 한식이 우주에서 일상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단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귀환할 때 좀 남으면 러시아 우주인들에게 선물하고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우주 실험 4일째=13일 이씨는 식물생장 실험과 세포 배양, 초파리 실험은 물론 물방울 실험, 회전운동 및 뉴턴 법칙, 표면 장력 실험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꿈을 심어주는 흥미로운 교육실험을 계속했다.
이씨는 “초파리와 식물의 생장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주에서도 이것들이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사실 지상에서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신기하고 놀랍더라”고 말했다.
이씨는 또 전날 시작한 7가지의 과학실험을 계속 수행하고, 우주시대에 장기간 우주공간에 머물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의 고속 메모리소자를 개발하기 위한 ‘차세대 메모리 소자 실증 실험’을 새로 시작했다.
<과학홍보대사 역할 특독=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우주 생방송’을 통해 과학홍보대사 역할을 특독히 해냈다. 화려한 말 솜씨와 순발력, 재치 등으로 어렵게만 느껴지던 과학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씨는 12일 오후 7시25분(GMT 오전 10시25분)께부터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영상대화를 통해 “우주에 직접 와보니 과학기술의 대단함을 느꼈다”며 “과학의 날뿐만 아니라 1년 365일 과학기술 발전을 도와주셔서 국민 모두가 우주에 올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국 청소년과 무선교신 성공

이에이 대통령은 “우주 과학시대를 여는 데 힘을 모아 과학인이 존경받는 과학기술국가가 되도록 최대한 힘을 쓰겠다”고 답했다.
첫 우주인 배출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의지를 전세계에 천명하고 대통령이 직접 생방송 대화를 통해 이를 다시 강조함으로써 과학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과학국가 건설이 한층 구체화될 수 있는 촉매가 됐다는 것이다.
한편 이씨는 이날 생방송을 위해 국제우주정거장에 태극기를 걸고 직접 디자인한 태극 문양의 우주복을 입는 등 온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제우주정거장(ISS)에 탑승한 이소연씨가 11일 오후 10시10분께 우주부중 연구를 위한 등고선 촬영 실험을 하고 있다. <SBS·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티베트 시위 확산
중정부 첫 시인

최근 중국 간수성 간난 티베트자치주에서 발생한 티베트 분리독립 요구 시위대의 시위 장면을 담은 동영상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중국 간난티베트자치주 인민정부는 12일 “지난달 14일부터 19일까지 간난티베트자치주 6개 현에서 구타와 폭력, 방화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면서 당시의 시위장면을 공개했다. 티베트자치주 라싸에서 분리독립 요구 시위가 발생한 이후 중국 인근 지역에서도 동조시위가 번지고 있다는 소문은 많았으나 구체적인 실태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간난티베트자치주 인민정부가 제공한 동영상에 따르면 라싸에서 대규모 유희시위가 발생했던 지난달 14일 간난티베트자치주 샤허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발생했다.
샤허에서 촉발된 시위는 갈수록 간난티베트자치주 내륙지방으로 확산돼 허웨이 이어 지난달 16일에는 마취와 무류로 퍼지는 등 6개 지역으로 급격히 확산했다.
티베트 불교 승려들과 주민들은 경찰서와 소방서 등 공공기관을 습격해 유리창을 깨고 불을 질렀으며 한쪽들이 운영하는 기업과 의원점, 슈퍼마켓 등을 방화하고 약탈했다.
마오성우 간난티베트자치주 인민정부 주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시위로 중국 공안과 무장경찰, 당간부 등 94명이 부상했으며 이중 10명은 중상”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삼성 의혹’ 처벌수위 검토 착수

특검 이학수 부회장·김인주 사장 조사

삼성그룹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검검사팀은 13일 비자금 조성·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마무리 수사를 위해 전략기획실(옛 구조조정본부)의 김인주(50) 사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전략기획실장인 이학수(62) 부회장은 오후 늦게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비자금과 경영권 의혹을 총괄·지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두 핵심 임원을 상대로 이견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룹 차원의 공모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주요 의혹별로 처벌 대상자와 수위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을 비롯해 ‘그룹 2인자’인 이 부회장과 ‘차기 전략기획실장’으로 거론되는 김 사장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이 회장의 경우 차명재산과 관련해 조세포탈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의 경우 수사를 끝내고 발표를 앞둔 최종 범죄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로비 의혹은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한 로비 대상인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임재진 검찰총장, 이계남 대구고검장(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가운데 일부로부터 서면진술서만 받는 선에서 수사가 끝나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특검의 수사결과에는 이르면 17~18일, 늦으면 21~22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버지니아공대 총격사건 1년
조승희 부모 아직도 은둔생활

워싱턴 포스트지 보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 가운데 하나인 버지니아공대 총격사건이 일어난지 1년이 지난 지금 조승희의 부모 등 가족들은 사실상 세상과 관계를 끊고 은둔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12일 보도했다.
포스트는 한국의 친척들도 버지니아공대 총격사건이 발생한 이후 조씨 가족들로부터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고 버지니아 페어팩스 센터빌에 있는 조씨의 타운하우스도 안을 들여다 볼 수 없게 블라인드가 항상 내려져 있고 창문에는 종이까지 붙여져 있다고

전했다.
조씨의 가족을 돕고 있는 웨이드 스미스 변호사는 “그들은 계속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면서 “그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은 조용히 있기를 원하고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총격사건 이후 조승희 가족의 이야기는 이민자들이 많은 버지니아 북부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들의 일상 생활은 이민 온지 5년 만에 구입한 2층짜리 타운하우스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고

“北, 시리아 핵협력 인정” RFA 보도

수주내 ‘안전하고 정확한 핵신고’ 美와 합의

북한과 미국은 지난 8일 싱가포르 회동에서 “우라늄 농축(UEP)활동과 시리아와 핵협력에 대한 북한의 관여 부분을 미국이 대신 신고(declare)하고, 북한은 이를 인정하고 도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밝혔다.
RFA는 ‘복수의 정통한 외교소식통’을 인용,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 10일(현지 시간) 미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브리핑 내용을 전하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RFA는 또 북한의 UEP활동과 시리아와 핵협력 문제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우려를 인정하고, 기술된 사실들에 대해 도전하지 않는다는 형식으로 된 비밀 양해각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이 요구

해온 ‘안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앞으로 수주안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RFA는 이같은 합의에 대해 일부에서는 “핵신고서에 미국이 북한을 대신해 UEP활동과 시리아와 핵협력 대목을 기술할 경우 북한은 미국이 기술하지 않은 대목에 관해 굳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 북한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고 소개했다.
RFA에 따르면, 힐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신고서에 밝히게 될 플루토늄 추출량과 관련한 기록에 대한 참가국들의 검증은 물론 추출량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관련 시설 사찰을 허용하기로 합의”했

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또 “북한이 2006년 10월 단행한 핵실험과 관련해 사용된 플루토늄의 양 등 추가정보를 기술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숫자가 얼마나 되고, 현재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해 신고서에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FA는 이어 “북한이 향후 수주내 핵신고를 준비하는 동안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를 위한 의회 통과를 차를 마무리하고, 북핵시설 봉쇄화와 북핵 폐기 등에 필요한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핵심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RFA는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의회 내 대체적인 분위기는 북핵 타결을 바라는 행정부를 도와 주자는 분위기”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Samsil Cheolsik' (삼실체질식) featuring a box of food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health and vitality.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Samhyeol (주) Samhyeol.

Advertisement for Sony Bravia televisions, featuring a large TV screen and text promoting a 'Customer Appreciation Festival' (고객감사 대축제) with special offers on Bravia models.